

한문 I 정답											
1	③	2	①	3	④	4	⑤	5	④		
6	④	7	②	8	①	9	③	10	④		
11	⑤	12	②	13	①	14	②	15	④		
16	③	17	④	18	④	19	①	20	⑤		
21	①	22	⑤	23	③	24	⑤	25	③		
26	①	27	②	28	③	29	②	30	⑤		

해 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밝은 달’을 뜻하는 것은 ‘明月’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ㄱ. 가다－오다, ㄴ. 살다, ㄷ. 나누다－합하다, ㄹ. 처음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춘색 ② 춘추 ③ 춘광 ④ 회춘 ⑤ 입춘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공은 음이 ‘공’, 부수가 ‘八’, 총획은 ‘6획’이며, ‘공존(共存)’은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이라는 뜻이다.
- [출제의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① 주식 ② 미식 ③ 과식 ④ 간식 ⑤ 조식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일침(一針)은 ‘한 대의 침’이라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를 이르는 말이다. 指針은 ‘지침’이라고 읽는다.
- [출제의도] 학습 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평화 ② 전지 ③ 현대 ④ 주관 ⑤ 자연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① 답하다(답) ② 쓰다(고) ③ 군사(줄) ④ 항상(상) ⑤ 집(우)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제시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적소성대(積小成大)’이다.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룸.’이라는 뜻으로,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진다는 말이다.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수여 ② 봉사 ③ 역주 ④ 외면 ⑤ 건강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불치하문(不恥下問)’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뜻의 성어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가로 열쇠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이고, 세로 열쇠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이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 살갓이 헐지 않으면 호랑이는 잡기가 (㉠어렵다.)
○ 악을 행하기는 쉬우나 선을 행하기는 (㉡어렵다.)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① 군사(군) ② 무리(중) ③ 소리(성) ④ 법(법) ⑤ 몸(체)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위태로움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삼인성호 ② 불문가지 ③ 결자해지 ④ 거안사위
⑤ 누란지위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세력으로 사권 사람은 세력이 기울면 끊어지고, 이익으로 사권 사람은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① 덕이라는 것은 근본이요, 재물이라는 것은 말단이다. ②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③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④ 그 장점인 바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단점인 바를 잊는다. ⑤ 알지 못하면 묻고, 할 수 없으면 배워라.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병이 그치고, 마음이 동요하면 만병이 생겨난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 [19～20]

하진은 일명 용문이니 물살이 험하여 왕래할 수 없어서 물고기나 자라의 무리도 ㉠올라갈 수 없었다.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가 용문 아래에 이르러 모인 것이 수천이었으나 오를 수 없었고 오르면 용이 되었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한자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기도 한다. ‘위’를 나타내는 ‘上’은 본문에서 ‘오르다’라고 쓰였다. ① 오르다(등) ② 임금(군) ③ 채주(제) ④ 기르다(육) ⑤ 씻다(세)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등용문(登龍門)’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을 뜻하는 성어이다.

- [21～22]

㉡최홍효는 온 나라에서 서예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과거를 보러 가서 답안지를 쓰다가 한 글자를 얻었으니 왕희지(의 서체)와 비슷하였다. ㉠앉아서 종일토록 (그 글자를) 보다가 차마 버릴 수 없어서 답안지를 품고 돌아오니 이는 득실이 마음에 있지 않을 뿐이라고 이를 만하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문맥상 坐視終日은 답안지를 제출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최홍효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과거 시험도 포기할 정도로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 [23～24]

선생이 경석에서 ㉠(임금에게) 의견을 아뢰었다. “예로부터 나라에서 한 번 군사를 쓰면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태평한 지 백 년이니 백성이 전쟁을 알지 못하였다가 지금 비로소 그것(병사)을 썼으니 이 뒤로부터 전쟁이 장차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첨진대 팔도에서 우수하고 강한 군사 십만을 미리 선발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십시오서.”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진언(進言)은 ‘윗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말함.’이라는 뜻이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율곡 선생은 전란에 대비하여 병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안빈낙도 ② 속수무책 ③ 팔방미인 ④ 후생가의 ⑤ 유비무환

- [25～26]

(가) 봄에 한 톨 곡식 ㉠심고,/가을에 만 낱알 씨앗 거두네./온 세상에 ㉡한가한 밭 없건만,/농부들은 오히려 굶어 죽는다네.
(나) 시냇가 몇집에 홀로 한가롭게 사니,/달은 ㉢희고 바람은 맑아 흥도 녀긋하네./바깥손님 오지 않고 산새만 ㉣지저귀니,/대숲 산자락으로 평상을 옮겨 누워 책을 ㉤보네.

-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白은 ‘희다’, ‘밝다’, ‘깨끗하다’ 등의 뜻이 있다.

-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에서는 곡식 수확량도 많고, 농사짓지 않는 땅도 없지만, 정작 생산자인 농부들은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자연에서의 삶을 동경해 왔는데, (나)에서 시적 화자는 손님도 찾지 않고 새소리만 들리는 깊은 산에서 은둔자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 [27～28]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니 왕이 말했다. “노인장께서 천 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

① 연소－주술 관계 ② 희망－병렬 관계 ③ 다정－술보 관계 ④ 황토－수식 관계 ⑤ 독서－술목 관계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맹자는 이익에 대해 말하는 임금을 꾸짖으면서 이해타산보다는 인의(仁義)라는 대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29～30]

무릇 사람은 자기는 굶었으나 남이 굶은 것을 ㉠미워하고 자기는 사사로우나 남이 사사로운 것을 미워하며 자기는 ㉡탐욕스러우나 남이 탐욕스러운 것을 미워하고 자기는 사치하나 남이 사치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와는) 반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윗사람이 곧은 뒤라야 아랫사람이 굶은 것을 금할 수 있고 윗사람이 공평한 뒤에야 아랫사람이 사사로운 것을 금할 수 있으며 윗사람이 청렴한 뒤에야 아랫사람이 탐욕스러운 것을 금할 수 있고 윗사람이 검소한 뒤에야 아랫사람이 사치스러운 것을 금할 수 있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惡은 ‘악하다’로 쓰이면 ‘악’으로, ‘미워하다’로 쓰이면 ‘오’로 읽는다. 貪은 음이 ‘탐’이고 뜻이 ‘탐하다’이며, 모양이 비슷한 貧은 음이 ‘빈’이고 뜻이 ‘가난하다’이다.

-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잘못을 미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의 잘못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